

“학교급식 전면확대하자”

농협 ‘쌀을 알자’ 학술심포지엄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농협중앙회의 ‘쌀을 알자’ 주제 학술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입맛에 길들여지기 전에 쌀 등 우리 농수산물을 먹는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학교급식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81년 학교급식법 제정에 따라 시작된 학교급식은 도서·벽지·농어촌·도시형으로 나

표한 조정순 대한영양사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만 2세 국민의 건강성장이란 제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세 전용, 기업기부금 허용 등 과감한 예산지원정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증가를 2.9%로는 원래 정부목표인 2천년까지 65% 보급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전면 실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농산물 먹는 생활습관위해 효과 교육세전용등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누어 실시되고 있으나 90년 현재 실시율은 전체 국민학교의 10%, 학생수로 6.1%에 불과하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부터 전국 7천6백39개 국민학교에 대해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문교부와 최종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경제기획원의 예산에도 반영돼 있지 않아 학교급식의 전면적인 실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학교급식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

표한 문교부의 학교급식과를 부활해 업무를 전담,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급식전담직원도 양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영남 경희호텔전문대 교수는 “편식·청량음료·기호만 좇는 편의주의 식습관이 만연해 최근 아동들의 비만증이 늘어나는 한편 아침 결식률은 높아지는 등 영양불균형 현상이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리 고유의 쌀밥 위주 반상 차림을 활용한 표준식단을 개발, 학교급식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애 기자〉